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48호

2025.05.01.(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호주·광물** 호주, 핵심광물 전략적 비축 통해 광물 공급망 안정화 도모
- 미국·광물** 미국, 심해 광물 채굴 신속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글로벌·광물** 국제니켈연구그룹, '25년 니켈 공급과잉 지속 전망
- 중국·반도체** 중국, 일부 미국산 반도체 보복관세 철회... 실리 중심의 정책 조정

주간 이슈 포커스

- 미국·희토류** 미국, 호주 희토류 개발에 투자하여 공급망 다변화 시도

원자재 뉴스 PLUS

- 에너지** 中, 2월부 미국산 LNG 수입 중단... 중동·아태지역으로 구매처 변경

II. 월간 공급망



EUDR, 원재료까지 공급망 실사를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미국 희토류 생산 프로젝트 동향

IV. 공급망 소식통



인사이트 150호 구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5.23.)

※ 제149호는 한 주 휴간 후 '25.5.15.(목)에 발간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호주, 광물 호주, 핵심광물 전략적 비축 통해 광물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핵심광물 전략 비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12억 호주 달러(약 1조 9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4.24.)
 - ▶ 전략적 비축이란 “정부가 중요한 광물을 구매, 소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차원에서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 이에 호주 정부는 전담반을 구성해 전략 비축 시스템의 범위와 구체적인 제도를 확정하고 '26년 하반기부터 전략 비축을 시작할 예정
- 호주 정부는 핵심광물을 매입하거나, 특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비축한 광물을 자국 내 산업과 주요 국제 파트너들에게 공급하기로 함
 - ▶ 우리나라는 호주와 '21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리튬·코발트·니켈·희토류 등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 중

핵심 키워드

핵심광물

비축

출처: 로이터(4.24.), Australian Mining(4.28.)

미국, 광물 미국, 심해 광물 채굴 신속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광물(니켈·코발트·구리·희토류 등)의 탐사·채굴 역량을 개발하고, 허가 절차를 신속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4.24.)
 - ▶ 미국 정부는 심해 과학기술 개발 및 지도 제작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및 동맹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해저 자원 개발을 위해 국제 협력과 민간 투자 촉진을 지시할 예정
 - * Exclusive Economic Zone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 설정되는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로, 연안국은 이 구역에서 수산물 및 광물자원 등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
 - ▶ 미국은 ‘해저 광물자원’의 범위에 다금속 단괴*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명시
 - * 해수와 퇴적물에 있는 금속 성분이 퇴적되며 형성된 심해저 광물로, 니켈·구리·코발트·몰리브덴·티타늄·이트륨·란탄·네오디뮴 등 40여 종의 금속 및 희토류 금속이 함유되어 상업적 중요성이 높음
-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핵심 키워드

심해광물

다금속 단괴

출처: 백악관(4.24.), 로이터(4.25., 4.1.), 파이낸셜 타임즈(4.12.)

글로벌, 광물 국제니켈연구그룹, '25년 니켈 공급과잉 지속 전망

국제니켈연구그룹(INSG)*은 '23년부터 니켈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25년 글로벌 니켈 시장의 공급과잉 규모가 19.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4.24.)

* 니켈 산업에 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동 기관의 공식 통계 및 전망 자료는 글로벌 니켈 가격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됨

▶ 글로벌 니켈 시장의 공급과잉 규모는 '23년에 17만 톤, '24년에 17.9만 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니켈 가격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4월 4주차 런던금속거래소(LME)의 니켈 재고량은 204,251톤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하여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임

INSG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광업 로열티 인상으로 인해 단기 공급부족이 예상됨에도, 중국 주도의 증산으로 인해 전체 공급량이 증가하여 공급과잉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밝힘

▶ 공급과잉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니켈 프로젝트 수익성이 악화되어 조업 중단이 잇따르고 있으나, 중국은 첨단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양극재용 니켈 생산을 늘리고 있음

핵심 키워드

니켈

공급과잉

출처: 로이터(4.24.), SMM(4.24.), KOMIS(4.28.)

중국, 반도체 중국, 일부 미국산 반도체 보복관세 철회... 실리 중심의 정책 조정

중국 정부가 최근에 미국 고율 상호관세에 반발하여 미국산 일부 반도체 제품에 부과했던 125%의 보복관세를 철회했다고 CNN은 보도함(4.25.)

▶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반도체 수입업체는 “메모리칩을 제외한 집적회로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가 면제됐다”고 발언해, 면제 조치를 받은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에 한정된 것으로 밝혀짐

▶ 이번 관세 철회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 없이 세관을 통해 개별 기업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당국이 내부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선별적 완화 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풀이

앞서 4.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 20개 품목의 수입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

▶ 이는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미국 소비자 가격 급등 및 자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

양국의 연이은 완화적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대외적으로 강경한 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자국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리 중심의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핵심 키워드

반도체

관세

출처: CNN(4.25.), 블룸버그(4.25.), 로이터(4.18.), KOTRA 워싱턴무역관 경통브리핑 25-30호(4.22.)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희토류 미국, 호주 희토류 개발에 투자하여 공급망 다변화 시도

호주 광물 탐사 기업인 빅토리 메탈스는 미국 수출입은행(EXIM)으로부터 최대 1억 9,000만 달러(약 2,730억 원)의 자금 조달 의향서를 받음

- 이는 서부 호주의 노스 스탠모어 중희토류 개발에 대한 조달이며, 동 지역에는 스칸듐·이트륨과 같은 중희토류 원소가 매장되어 있음
- 자금은 미국 수출입은행의 CTEP에 따라 15년 동안 부채의 형식으로 조달될 예정

▶ (참고) CTEP(China and Transformational Exports Program)란?

- ▶ 미국 수출입은행이 자국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한 프로그램으로, 금융 지원을 통해 중국 및 기타 경쟁국의 수출 보조금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 ▶ CTEP는 인공지능, 에너지 저장, 반도체 등 10개 혁신 분야의 미국산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을 촉진함
- '24.11월, 미 의회는 CTEP의 금융 지원 한도를 높이고,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프로젝트에 지원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발의

미국의 희토류 대외 의존도

▶ '24년 미국 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 수입 현황

국가	수입량(톤)	비중(%)
중 국	11,000	82
말 레 이 시 아	1,000	7
일 본	400	3
남 아 공	260	2
기 타	740	6
합 계	13,400	100

출처: USGS

- ▶ 미국 내에서 일부 희토류 광물은 생산되지만, 희토류 금속 및 정제 화합물 형태로는 전량 수입에 의존 중
- ▶ '24년 기준, 중국은 미국의 희토류 수입의 약 82% 차지
- 이트륨과 같은 중희토류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경우도 존재함
- ▶ 말레이시아와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희토류도 중국산 원료를 재가공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미국의 중국 의존도는 공식 통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호주의 희토류 광물 현황

▶ '24년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및 생산량 단위: 천 톤

순위	국가	매장량	국가	생산량
1	중국	44,000	중국	270
2	브라질	21,000	미국	45
3	인도	6,900	미얀마	31
4	호주	5,700	태국	13
5	러시아	3,800	호주	13

출처: USGS

- ▶ '24년 기준 호주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570만 톤으로 세계 4위 수준이며, 전 세계 희토류 원소 매장량의 약 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 '24년 기준 호주의 희토류 생산량은 약 1.3만 톤으로 세계 5위 수준이고, 이는 라이나스(Lynas)사의 서호주 Mount Weld 광산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도 가동 또는 준비 중임

▶ 미국의 호주산 희토류 수입 전망

- 호주는 희토류 원광 채굴에는 강점이 있으나, 분리·제련·정제 등 가공 시설이 부족하므로, 호주에서 채굴된 희토류 대부분은 원광 또는 1차 가공을 거친 후,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되어, 재가공된 후 재수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미국은 '22년도에 호주의 라이나스사 등과 협력해 미국 내 희토류 가공 시설을 건설하고, '25.4월 호주 희토류 탐사 기업에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히는 등 호주산 희토류 사용을 늘릴 전망
- 또한 호주는 '25.4월 핵심광물 전략 비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12억 호주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물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핵심 키워드

희토류

공급망

출처: mining technology(4.24.),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Discovery Alert(4.25.), EXIM(4.28.)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넛

에너지 中, 2월부 미국산 LNG 수입 중단… 중동·아태지역으로 구매처 변경

☐ 닛케이와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크플러에 의하면, 중국이 2.6일 이후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전혀 수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미중 관세 갈등이 시작된 이래로, 미국 생산업체와 장기 공급계약을 맺은 중국 LNG 구매업체들은 유럽에 LNG를 재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함
- ▶ 이로 인해 중국 에너지업체들은 미국과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소극적이며, 대신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업체들과의 장기 계약을 모색 중임

출처: 닛케이(4.28.)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4월 4주)

비철금속 | 관세부와 우려 등으로 동 가격↑, 메이저 광산 생산감소 등으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3월	전년비(%)	4.3주	4.4주	전주비(%)
동	9,147	9,340	2.1	9,123	9,371	2.7
니켈	16,812	15,571	△7.4	15,340	15,558	1.4
아연	2,779	2,838	2.1	2,575	2,607	1.2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美의 동 관세부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수요 확대에 의해 주요 거래소의 재고량이 급감하면서 가격 상방 압력 발생

☐ (니켈) 메이저 광산의 생산감소 및 인니 광업 로열티 인상 결정으로 인해 니켈 가격 상방 압력 발생

- ▶ 다만, 니켈 공급과잉 및 주요 거래소 재고량 증가로 상기 상방 압력 일부 상쇄

철강 | 건설업 계절적 수요 확대 및 주요 철광석 생산국 출하량 감소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3월	전년비(%)	4.3주	4.4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10.05	△19.3	98.70	95.15	△3.6
원료탄	240.90	184.54	△23.4	183.90	189.85	3.2
철광석	109.89	103.44	△5.9	98.70	99.89	0.9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유연탄) 주요국의 석탄 증산 우려 및 계절성 수요 부진에 따라 연료탄 가격 하방 압력 발생

☐ (철광석) ▲건설업계의 계절적 수요 확대, ▲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호주, 브라질 등 주요 철광석 생산국의 기후조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출하량 감소로 가격 상방 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4월 4주)

희소금속 | 칠레·아르헨티나 등 주요 생산국의 공급 증가로 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3월	전년비(%)	4.3주	4.4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123	△6.5	1,080	1,070	△0.9
탄산리튬	12,526	10,311	△17.7	9,752	9,531	△2.2
수산화리튬	11,398	9,619	△15.6	9,232	9,221	△0.1
코발트 (U\$/lb)	16.25	15.31	△5.8	19.50	19.50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31,589	△10.0	230,750	239,300	3.8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60,463	8.6	60,875	59,100	△2.7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금주 칠레와 아르헨티나 중심으로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폭 확대

에너지 | 美-中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 제기 등으로 인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4.3주	4.4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4.58	△4.75	66.91	68.50	1.59
브렌트유	79.86	73.07	△6.79	65.84	66.59	0.75
WTI	75.76	69.50	△6.25	62.50	63.11	0.61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 희망 신호를 보낸 것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 ▶ 4.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2~3주간 관세를 조정할 것이며, 중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발언해 향후 美-中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을 시사함
- ▶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또한 美-中 간 무역 협상 전 상호 간의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발언
- ▶ 4.22일 미 재무부가 지난 4.10일과 4.16일에 이어 추가적인 이란産 석유 제재를 발표한 것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OPEC+의 증산 물량 확대 가능성 제기로 인해 유가 상승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풀이

월간 공급망

◆ EUDR, 원재료까지 공급망 실사를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작성 딜로이트안진 임소현 박사

지난 2.26일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로 인해 EU의 비관세 장벽이 비교적 완화되면서 기업의 ESG 규제 대응 부담이 줄었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면에서 부담이 완화됐다. 4.15일, EU 집행위원회는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이하 'EUDR')을 간소화한 개정안(Updated Guidance Document)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과 함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였다.

EU는 1990~2008년 동안 산림 벌채와 관련된 전 세계 농산물 거래량의 1/3을 수입하고, EU 내에서 10%를 소비했다. EU는 산림 유지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림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23.6.29일에 처음으로 EUDR을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24.12.31일 이후로 EU에 수입·생산·판매·수출하는 기업에게 ▲'20.12.31일을 기점으로 산림전용*된 농지에서 생산하지 않았으며,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은 제품임을 입증하도록 했다.

EU는 이번 개정본에서 기업의 리스크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 유예와 함께 EUDR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 DDS)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당초 '24.12.30일로 예정되어 있던 EUDR 규제 시행 일정은 변경되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5.12.30일부터, 중소기업인 경우 '26.6.30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 산림전용(Deforestation)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일반 산림 벌채(logging)와 목재 수확(harvesting)과는 다르고, '인위 개입 여부를 막론'하고 산림이 농지·주택지 등 다른 용도의 토지로 영속적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국제·국내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국제적 기준으로는, ▲산림의 최소 수관 율폐도가 10% 미만으로 영구히 감축된 경우, ▲농지·축산지·저수지·광산 및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교란, 과도한 사용 또는 생태 조건의 변경 시, 그로 인해 산림의 수관 율폐도 10% 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경우가 해당된다. 단, 목재 수확 및 벌채로 나무가 제거된 지역이거나 자연적으로 또는 조림 등의 조치로 산림이 재생될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국내 기준으로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조림, 숲 가꾸기, 임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사용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산림황폐화(forest degradation)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으나, EU에서는 ▲산림피복의 구조적인 변화로서 그 형태가 전환된 것, ▲원시림이나 천연 갭신림이 산업조림지 또는 기타 임야로 전환되거나, ▲원시림이 인공림으로 전환된 것으로 정의한다.

☐ 주요 간소화된 내용

개정 내용	개정본
실사보고서(DDS) 제출 횟수	매 선적(shipment) 또는 배치(batch) 단위가 아닌 연 1회 보고
DDS 재사용 가능 여부	EUDR 요건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EU 시장에 재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거의 DDS 재사용 가능
기업 그룹 단위 보고 가능 여부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은 기업 그룹 내 계열사들을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제출 가능
실사 이행 확인 (ascertainment)기준	1. 다운스트림은 기업은 업스트림 공급업체가 제출한 실사 보고서의 참조번호(reference number) 및 검증번호(verification number)를 수집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 필요 2. 자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스트림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실사 체계 구축 및 관리 의무를 부담

규제 대상 기업

- 규제 품목을 EU 역내 시장에 수입, 생산, 판매, 수출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이 기업에는 운영자(operator)와 거래자(trader)가 포함된다. 운영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규제 대상 제품을 EU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역내로 수입하는 수입업자 중, EU 내 등록된 사무소, 지사, 영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운영자로서 규제 대상이 된다. 거래자는 상업 목적으로 규제 대상 제품을 EU 시장에 제공하는 공급망 내 운영자를 제외한 기업이다.

규제 대상 품목

- 규제 대상에는 7가지 품목(소(cattle)·코코아·커피·팜유·대두·목재·고무)이 대표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를 사용해 생산된 초콜릿·가구·종이·숏·타이어·가죽제품 등 파생 제품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파생품목 목록은 규제의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공된 규제 제품일 경우, 가공 단계에서 원산지 미상 또는 산림전용이나 황폐화가 발생한 원산지 제품과 혼합이 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 이처럼 파생상품 또는 가공된 제품의 수는 매우 다양하며, 국내 소비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 업계에서도 국내 기업과 연관된 전략적 산업 및 제품이 많다. 일례로, 팜유의 경우, ▲정제된 이후 식품(식용유·마가린·쇼트닝), ▲동물 사료, ▲유지 화학(화장품·세제·지방 알코올·지방산·표면 활성제·비누 등), ▲바이오 에너지(바이오 디젤·글리세린·차세대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어 국내 기업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재에는 통나무, 합판, 목재 가구뿐만 아니라 펄프, 종이까지도 포함되어 포장재까지 포함하면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적용제품	관련 및 파생 제품
소(cattle)	소, 쇠고기, 내장, 간, 원피
코코아	코코아두, 껍질, 페이스트, 버터·유지류, 가루 초콜릿
커피	커피, 껍질, 함유한 커피 대용물
팜 유	팜너트와 핵, 분획물, 글리세롤, 공업용 스테아리산·올레인산과 지방성 알코올, 애시드유 등
고무	천연고무, 배합고무, 고무실과 끈, 판, 시트, 스트립, 막대, 공기타이어, 쿠션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 플랩, 인너튜브, 의류 부속품, 경질고무의 제품 등
대두	대두, 가루, 분획물, 고체 형태의 유박 등
목재	떨나무, 목재 웨이스트와 스크랩, 목탄, 원목, 호프우드, 쪼갠 목재 막대, 목모와 목분, 크로스타이, 제재목, 베니어용 단판, 섬유판, 베니어패널, 고밀도화 목재, 목재로 만든 케이스, 상자, 포장 용기, 목재로 만든 공구, 목재 건축용 건구, 식탁 용품, 주방용품, 목재 가구, 의자, 조립식 건축물 등

기업 운영자의 실사 의무

-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생산·수출하는 모든 운영자 및 거래자는 위의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과 무관하며 생산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①제품의 수량, 생산국과 지리적 위치, 공급자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보 보관은 최소 5년이다. ②규제 대상 제품이 EUDR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③만약 위험이 식별된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략적 이행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만일 독립적인 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할 당국 및 관련 거래자에 통지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로는 거래 중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급처로의 변경이 포함된다.

- 운영자는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실사 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사 내용서에는 ①운영자 기업명, 주소, 제품의 고유식별번호(EORI)와 ②품목분류번호(HS Code), 상호, 전체 학명, 양(순중량, 부피, 수량) 등을 기재해 EUDR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 거래자의 의무

- 거래자는 공급망 상 제품 및 거래정보를 보관하고, EUDR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관할 당국에 알려야 하며, 당국의 요청 시 관련 거래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국가분류 위험도

- EU가 '21년에 수입한 냉동 쇠고기의 54%가량이 아마존 산림 전용을 통해 생산한 브라질산 고기였으며, 수입된 코코아 열매의 44%와 코코아 페이스트의 54%가 불법 목재거래 및 아동 노동 등에 연루된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U는 규정에 따라 3가지(고위험·저위험·표준위험) 유형으로 국가를 분류하였다. 기존 산림 전용 금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위험이 높은 국가는 고위험, 낮으면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며, 어느 것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국가는 표준위험 국가에 해당된다. 제품 및 제품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의 위험도에 따라, 기업은 실사 방식과 절차 난이도가 달라질 것이다.

📌 규정 위반 시 처벌

- 규정 미준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준수 요건을 시정하고 해당 제품의 출시 금지, 회수, 자선 또는 공익 목적의 기부, 폐기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받게 된다. 또한 환경피해와 규제 품목의 가치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벌금 수준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 벌금 부과 이전 회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 4%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품 및 해당 제품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뿐만 아니라, 최대 12개월까지 공공 조달 또는 입찰 참여 제한 및 보조금 수령 기회도 박탈당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규제이다.

📌 EUDR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EUDR은 원재료 단위에서 규제하고 있기에, 사실상 기업들은 제품 조달 및 제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타이어 업체와 자동차 OEM사는 타이어의 주 원료인 천연고무를 생산하는 농가의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림 감소와 열화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동남아 등 해외의 영세한 농가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미비한 상태이다.
- 특히 자동차 업계와 같은 경우, 공급망 실사의 관점에서 규제보다 이미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고객사 별로 각기 다른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BMW의 경우, EUDR의 간소화 개정안은 오히려 EUDR의 목적을 훼손시킨다는 명분 하에 반대 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규제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기후 변화는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원재료의 생산 및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도 초, 타이어에 쓰이는 천연고무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급등했다. 고무나무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여 이상기후에 취약하므로, 태국의 경우, 대규모 홍수로 인해 고무 생산량도 줄었지만, 농가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팜나무 재배로 품목을 대체해 고무 가격이 높아졌다. EUDR과 관련해 원재료 추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보관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비용, 지속가능성 인증 획득 및 대체 원재료 수급 및 확보에 따른 행정 비용은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기업들은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미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 EU는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국내 가장 큰 제조 업계뿐만 아니라, 가장 민감한 한국산 농축수산물 식품의 EU 수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기존에는 돼지, 양, 염소, 가금류, 옥수수 등 논의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 결론

- 지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59만km²의 산림이 감소했으며, 이는 EU의 면적인 432만km²보다 더 큰 면적이다(Global Forest Watch, 2023). 하지만 대부분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산림파괴로, EU는 세계 최초로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규제하고, 산림파괴로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하며, 이런 원재료를 가공하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 및 지속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해 EUDR을 발효했다. EUDR은 원주민의 권리 또한 보호하는 내용을 적극 담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을 연간 최소 3,200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더 나아가, 기업들이 원재료의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의의 목적 이면에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행정 비용과 원재료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기업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런 7가지 원재료를 조달하는 소규모 농가 또는 저개발 국가에게는 역차별적인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 ▲공급망 내 원재료를 추적하는 것, ▲가공 단계의 혼합 여부 및 흐름을 추적하는 것, ▲원재료의 지역적 편중에도 불구하고 대체처를 찾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 현재 적용 연장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기업들은 규제 대상 제품의 조기 출하와 출하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원재료 조달 경로 전체를 추적하고, 원산지 검증 및 데이터 관리·보관 플랫폼 개발은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작업이기에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

공급망 더 알아보기

미국 희토류 생산 프로젝트 동향

작성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미국의 희토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높은 중국 의존도

▶ 희토류는 ①광물 정광(Mineral concentrates)과 ②화합물 및 금속(Compounds and metals)으로 나뉨

① 광물 정광은 광산 단계 생산물로 불순물을 제거한 수준에서 다소 거칠게 정제된 광물

② 화합물 및 금속은 광물 정광에 추가적인 화학 처리와 제련을 통해 화합물 및 순수 금속을 정제한 형태

▶ 미국은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을 중심으로 희토류 광물 정광을 생산하고 있지만 화합물 및 금속의 생산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

▶ 미국 희토류 생산량 통계(2024-2024)

* 2024년 수치는 추정치(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e
광물 정광	39,000	42,400	42,500	41,600	45,000
화합물 및 금속	-	120	95	250	1,300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2025)

▶ 미 지질조사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4년 기준 소비량 대비 해외 수입량으로 계산한 미국의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 대외의존도는 약 80%로 매우 높은 편

▶ 주요 수입국은 중국(70%), 말레이시아(13%), 일본(6%), 에스토니아(5%) 순

▶ 중국은 '24년 기준 세계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 생산량의 약 69%를 담당하는 1위 생산국으로, 미 지질조사국 발표 기준 '24년 약 270,000 메트릭 톤의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을 채굴 및 생산

▶ '24년 미국의 화합물 및 금속 생산량은 1,300 메트릭 톤

▶ 미국의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 수입 동향 (2024-2024)

* 2024년 수치는 추정치(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e
화합물	6,510	7,690	10,700	8,920	8,000
금속: 페로세륨 및 합금	270	330	395	259	220
금속: 희토류 금속, 스칸듐 및 이트륨	363	580	487	476	90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2025)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조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 ⑤ 미국의 희토류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가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부터 정권에 무관하게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안
 - ▶ 이는 최근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음
- ⑤ 지난 4.4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부와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7종에 대한 이중용도(군사 및 민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소프트웨어·기술) 수출통제를 발표
 - ▶ 수출통제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희토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함
- 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차등 상호 관세율은 4.2일 발표 당시에 34%였으나, 4.9일 125%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지난 3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20%의 추가 관세가 합산되면 총 145%의 추가 관세가 중국에 부과
- 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4.15일 핵심광물 및 관련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미국 상무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 4.18일, 주요 광물 생산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간소화 프로그램(FAST-41)의 적용을 받을 10개의 광산 프로젝트가 추가 발표
 - ▶ 이 10개의 프로젝트 중 하나는 몬태나주 Libby Exploration 광산에서의 희토류 매장 탐사

미국의 자국 내 희토류 생산 프로젝트 동향

미국이 자국 내 희토류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현재 기준 자국 내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 직전 단계까지 이른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① Mountain Pass

- ⑤ MP Materials社は 미국에서 현재 기준 유일한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희토류 광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패스 광산을 운영하고 있음
- ⑤ 이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혼합 희토류 정광,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및 NdPr 금속, 세륨, 란탄을 생산 중이며 모든 희토류 관련 생산 공정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 특징
 - ▶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일본 스미토모 상사가 주요 고객
- ⑤ MP Materials는 '22년부터 미 연방 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텍사스 포트워스(Fort Worth)에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공급받은 NdPr 산화물로 희토류 영구자석을 제조할 수 있는 희토류 자석 제조 시설을 추진해 왔음
- ⑤ 이 포트워스 제조시설은 '25년부터 가동이 개시되어 현재 상용화 전 단계이나, '25년 말부터 제너럴모터스를 비롯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

② White Mesa Mill

- ⑤ 화이트 메사 제련소(White Mesa Mill)은 본래 유타주에 소재하고 있는 우라늄 정제 시설이지만, '24년부터 모자나이트 정제를 통한 NdPr 등 희토류 산화물의 상업 생산 역량을 달성
- ⑤ 이 화이트 메사 제련소를 운영하는 Energy Fuels社は 미국의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로서 우라늄 정제 및 용매추출 기술에 필요한 라이선스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희토류 분리 및 정제 설비로 쉽게 사업 확장을 할 수 있었음

- ▶ 희토류 분리 시설 단계는 ①NdPr 같은 경희토류 분리 설비 구축 단계, ②디스프로슘(Dy), 터븀(Tb) 등 분리 원소 범위를 중희토류로 확장한 단계, ③고순도 희토류 완전 분리 능력을 갖춰 완전한 공급망을 완성한 단계로 나뉨
- ▶ 화이트 메사 제련소는 2024년 1단계 희토류 분리 회로에서 모자나이트를 통한 NdPr 38톤 생산에 성공
 - ▶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00톤의 NdPr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 현재 2단계 및 3단계 분리 시설을 설계 중으로 관련 라이선스 취득 과정에 있음
- ▶ 또한, 2025년 3월엔 한국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MOU를 체결하여 EV 및 하이브리드 EV 구동장치에 대한 비중국 희토류 자석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 포스코는 EV 모터에서 자기장을 유도하는 철심인 트랙션 모터 코어의 생산업체로, NdPr 영구자석이 이 트랙션 모터 코어의 성능을 끌어 올려주는 역할을 함

③ Innovations Lap

- ▶ 오클라호마주 스틸워터(Stillwater)에 위치한 USA Rare Earth LLC社의 희토류 생산시설 이노베이션 랩(InnovationsLab) 역시 '25년엔 희토류 영구자석의 상업 생산이 가능할 전망
- ▶ USA Rare Earth LLC는 텍사스 라운드 탑(Round Top) 광산에서 채굴한 중희토류 광석을 공급받아 영구자석을 생산하려 함
 - ▶ 특히, 소결(Sintering) 방식으로 네오디뮴 자석을 생산하고자 하며, '25.1월 영구자석 첫 소량 생산에 성공함
 - ▶ 소결 네오디뮴 자석의 경우 중국이 주요 생산국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음
- ▶ 이노베이션 랩은 현재 시범 운영 단계이지만 향후 연간 약 5,000톤의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25년 2분기부터 고객사에 샘플 제품을 제공할 예정

📌 시사점

- ▶ 4.15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핵심 광물과 그 파생 제품의 대외 의존이 미국의 방위 역량, 인프라 개발, 기술 혁신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 미국은 향후 지속적으로 희토류 공급망의 자국 내 생산 강화를 위해 연방 정부 주도 하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 첨단 및 방위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희토류 공급망을 장기간 중국에 의존해온 결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희토류 공급선 다변화란 과제에 부딪히게 됨
- ▶ 특히 미국이 지금과 같은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 체계를 추진해 나간다면 한국, 일본, EU 등 동맹국들 역시 기존의 높은 희토류 중국 의존도를 중국 외부로 전환해야 하는 직접적인 요구에 대면할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공급망 소식통

◆ 인사이드 150호 구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5.23.)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인사이드 150호

구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

STEP 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 구독!



”

“

STEP 2



설문조사 QR



① 카카오톡 '채널 메뉴' > '회원 등록' 클릭 후 정보 기입
회원 등록으로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드' 뉴스레터 등 매주 알찬 공급망 소식과 다양한 행사 소식을 받아보세요!

② 카카오톡 '채널 메뉴' > '이벤트 참여' 클릭하여 설문조사 참여

추첨을 통해 60분께 카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글로벌 경제지표 ['25.4.29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3말	4/25	4/28	4/29	전일비	전년말비
₩/US\$	1,288.00	1,472.50	1,472.90	1,436.50	1,442.60	1,437.30	△0.37	△2.39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470.00	1,434.10	1,440.00	1,434.90	△0.35	△2.64
₩/CNY	181.37	202.38	203.06	197.23	197.76	197.28	△0.24	△2.52
₩/¥100	912.25	932.67	989.70	999.90	1,004.30	1,009.60	0.53	8.25
¥/US\$	141.19	157.88	148.82	143.66	143.65	142.36	△0.90	△9.83
US\$/EUR€	1.1105	1.0429	1.0832	1.1342	1.1365	1.1393	0.25	9.24
CNY/US\$	7.1092	7.2992	7.2517	7.2859	7.2971	7.2710	△0.36	△0.39

* '24년 평균 환율: (₩/US\$)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S\$) 1450.2원, (₩/¥100) 966.1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4/28	4/29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66.85	64.61	△2.2	△5.7	△11.3
						△3.4%	△8.1%	△14.9%
철광석		89.35(9.23일)	100.00	99.40	99.30	△0.1	10.0	△0.7
						△0.1%	11.1%	△0.7%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365.50	9,487.50	122.0	1402.0	781.5
						1.3%	17.3%	9.0%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400	2,430	30.0	320.0	△86.5
						1.3%	15.2%	△3.4%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5,450	15,380	△70.0	415.0	280.0
						△0.5%	2.8%	1.9%

반도체

구 분	'23말	'24.11말	'24.12말	'25.2말	'25.3말	4/24	4/25	4/28	4월(~25)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4	1.84	1.75	1.73	1.92	2.00	2.01	2.02	1.97
(%, YoY)	△14.8	10.8	0.5	△11.1	0.0	2.7	3.1	3.7	1.7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38	6.68	6.63	6.62	6.85	7.08	7.08	7.15	6.99
(%, YoY)	△2.3	4.0	3.9	3.2	7.0	10.8	10.8	11.9	9.3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4/11	4/18	4/25	전주비(4/18)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394.68	1370.58	1347.84	△1.7%	△45.2%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4/24	4/25	4/28	4/29	전주비(4/28)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1353	1373	1403	1398	△0.4%	40.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주관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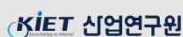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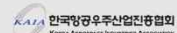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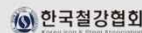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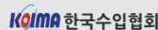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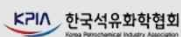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